

간호대학생의 자기조절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

조혜경*

초당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The Influences on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of Nursing Students

HaeKyung Cho*

Professor, Dept. of Nursing, Choda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간호사 국가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간호학과 4학년의 자기조절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확인하고자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이를 위해 C도에 소재하는 대학의 간호학과 4학년을 대상으로 2021년 11월 중순부터 2주 동안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부적절한 응답지를 제외한 107명의 설문지를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성별, 연령, 취업여부에 따른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자아탄력성($r=.376, p<.001$), 자기효능감($r=.590, p<.001$), 자아존중감($r=.495, p<.001$)은 자기조절학습능력과의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은 자기조절학습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설명력은 41.1%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간호대학생들의 자기조절학습능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과 새로운 교수법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 간호대학생,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자기조절학습능력

Abstract This study is a descriptive investigation study attempted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the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of the 4th grade students of the Department of Nursing who are preparing for the national nurse exam. Data were collected for two weeks from mid-November 2021 and 107 survey results were analyzed using the SPSS/WIN 21.0 program. As a result, ego-resilience ($r=.376, p<.001$), self-efficacy ($r=.590, p<.001$), self-esteem ($r=.495, p<.001$)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correlation with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respectively. These factors significantly affected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adj. $R^2=.411, F=25.684, p<.001$).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developing programs and new teaching methods for nursing college students preparing for the national examination.

Key Words : Nursing Student, Ego-resilience, Self-efficacy, Self-esteem,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간호학과 학생들은 졸업하기 전 대부분 취업이 되지만 간호사 국가시험을 통과해서 간호사 자격증이 주어져야만 유효하므로 국가시험은 반드시 합격해야 한다. 2021년 간호사 국가시험에 응시한 22,933명 중에서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5.2%에 해당하는 천 명이 넘는 학생들은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로 활동하지 못한 채 1년 동안 국가시험 준비를 해야한다[1]. 이

는 간호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할 때 안타까운 일이라 할 수 있다.

간호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 기준 이상의 지식과 기술 및 태도를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간호사 국가시험이다. 비록 국가시험에 탈락했다 해도 대학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들이므로 국가시험을 통과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식은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에서 특히 학습역량이 부족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들을 살펴보면 자기효능감이

*Corresponding Author : HaeKyung Cho(hkcho43@hanmail.net)

Received December 6, 2022

Accepted December 20, 2022

Revised December 15, 2022

Published December 28, 2022

낮고[2] 자기통제, 자기조절능력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3,4]. 결국 이러한 학생들이 국가시험에서 탈락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4학년 2학기가 종료되고 국가시험 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학생은 본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시간에 공부하게 된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은 자기주도적 학습일 것이다. 자기조절학습능력은 스스로 정한 목표의 결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에 따라 학습 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을 스스로 선택하고 조절하는 능력이다. 이를 통해 학습에 대한 통찰력과 확신을 가지게 되며, 자기효능감이 높고 자발적으로 학습을 위한 환경을 선택하고 창조하며, 자기 강화를 하게 된다[5]. 또한 학습에 대한 높은 동기와 책임감을 보이며, 지식 습득이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체계적인 과정으로 여기기 때문에 학업성취도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6,7]. 자기조절학습능력이 높은 학생들은 학습자의 책임감을 가지고 초인지적, 동기적, 행동적으로 학습에 적극 참여하며, 자기 조절에 대한 적절한 훈련으로 학습과 성취에 대한 통제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학습 부진을 완화할 수 있다[8]. 그러므로 자기조절학습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학습 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국가시험에 대한 시험불안, 시험스트레스는 국가시험 날짜가 다가올수록 높아질 것이다. 이를 감소시키는 관련 요인들 중에서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은 학생들의 내적 요인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자아탄력성은 내외부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나 역경을 견디며 유연하게 대처하여 건강하게 적응해가는 능력으로 낙관적인 태도와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9]. 또한 자아탄력성은 시험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개인의 긍정적인 보호요인이며 시험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일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다[10]. 자기효능감은 성공적인 업무수행을 통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나 가능성을 말하며 시험을 준비하는 동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집중하게 한다[11]. Noh & Lee(2016) [12]가 간호대학 4학년을 대상으로 국가시험에 대한 시험불안을 설명하는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은 가장 높은 예측요인이었으며 시험불안을 감소시키는 선행요인임을 확인하였다. 그래서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동안 학생의 내적 특성인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한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존경

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을 유능한 사람으로 생각하므로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능력이 높고 긍정적이며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13]. Park, Bae & Jeong.(2002)의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학업 및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는 낮았지만[14] 다른 연구에서는 과도한 시험불안이 자아존중감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15]. 이처럼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은 시험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지만 자기주도학습이 필요한 국가시험 준비 상황에서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영향요인으로 작용하는지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으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간호사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기조절학습능력을 강화시키는 영향요인들을 확인하여 간호사 국가시험 탈락률을 감소시키고,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기조절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자기조절학습능력 정도를 파악한다.
- 2)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3) 간호대학생의 자기조절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사 국가시험을 앞둔 간호대학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자기조절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 대상자는 C도에 위치한 일개 대학에 재학 중인 간호학과 4학년 학생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후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은 후 구술 설문

URL을 전달하였다. 본 연구에 필요한 표본수는 G*Power 3.1.9.4 program을 이용하여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80, 예측 변수 7을 적용한 결과 연구에 필요한 총 103개 이상의 표본이 필요하였으며, 수집된 자료 110개 중에서 결측이 많거나 연구에 부적합한 자료를 제외한 107개의 자료를 최종 분석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자아탄력성

Klohnen (1996)[9]이 캘리포니아 인성검사(California Personality Inventory: 이하 CPI)와 캘리포니아 성인용 Q-Set(California Adult Q-set: CAQ)을 토대로 29개의 문항을 뽑아 타당화한 자기보고식 자아탄력성 척도를 Park(1997)이 번역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하부요인에는 낙관적 태도 10문항, 대인관계 효율성 8문항, 자신감 9문항, 감정통제 2문항으로 Likert 척도 5점 만점에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Park(1997)의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α)는 .8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2 이었다[16].

2.3.2 자기효능감

Sherer 등(1982)[17]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36 문항의 척도를 Hong(1995)이 일부 수정하고 변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하부요인에는 일반적 자기효능감 17문항, 사회적 자기효능감 6문항으로 Likert 척도 5점 만점에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Hong(1995)의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α)는 .8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8이었다[18].

2.3.3 자아존중감

Rosenberg(1965)[19]가 개발한 자존감 척도를 Lee & Won(1995)이 변안한 한국판 척도를 사용하였다. 긍정진술 5문항, 부정진술 5문항으로 Likert 척도 5점 만점에 점수가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은 것을 나타내는 것이며 Lee & Won(1995)의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Cronbach's α)는 .89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7이었다[20].

2.3.4 자기조절학습능력

자기조절학습능력 측정도구는 Chung(2005)의 대학생용 자기조절학습능력을 사용하였다. 하부요인은 동기 조절 32문항, 인지조절 31문항, 행동조절 25문항으로 총

88문항으로 Likert 척도 5점 만점에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조절학습 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Chung(2005)의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α)는 .93 ~ .9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7이었다[21].

2.4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C도에 소재한 대학의 간호학과 학생 4학년년을 대상으로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대상자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2021년 11월 중순부터 2주동안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107부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2.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확인하였으며, Sheffe로 사후 검정하였다.
- 대상자의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자기조절학습능력의 관계와 영향은 Pearson Correlation 상관관계와 다중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2.6 연구의 윤리적 고려

연구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상자에게 자료수집 시 설문자료를 연구목적외로만 사용할 것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 동의를 받았으며, 연구 참여에 동의한 후에도 언제든지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알렸다. 설문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설명하고 본 연구 참여 의사가 있는 경우에만 참여하도록 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과 같다. 간호학과 4학년 중에서 여학생이 85명(79.4%), 남학생은 22명(20.6%)이었고, 취업이 확정된 학생은 91명(79.4%), 아직 취업이 확정되지 않은 학생은 16명(15%)이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Categories	Total (N=107, n(%))
		Gender
	Female	85(79.4)
	Male	22(20.6)
Age		
	≤23	70(65.4)
	24-26	30(28.0)
	27≤	7(6.5)
Employment		
	get a job	91(85.0)
	unemployed	16(15.0)

3.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차이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인 성별, 나이, 취업 여부에 따른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자기조절학습능력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2).

3.3 대상자의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자기조절학습의 관계

연구대상자의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상관관계는 Table 3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자아탄력성은 자기효능감($r=.764, p<.001$), 자아존중감($r=.693, p<.001$)과 유의하게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자기조절학습능력($r=.376, p<.001$)과는 중간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자기효능감은 자아존중감($r=.598, p<.001$), 자기조절학습능력($r=.590, p<.001$)과 유의하게 중간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자아존중감은 자기조절학습능력($r=.495, p<.001$)과 유의하게 중간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3.4 대상자의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이 자기조절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

연구대상자의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이 자기조절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Table 4와 같다.

연구대상자의 자기조절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회귀분석 가정을 검증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는 .330~.509로 0.1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지수(VIF)는 1.96~3.03으로 10이하이므로 다중공선성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잔차의 독립성 검증 결과 Durbin-Watson은 2.007로 2에 가깝기 때문에 잔차의 자기상관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회귀분석의 가정을 모두 만족하였으므로 다중회귀분석을 시도하였으며 회귀모형의 모형 적합도는 적절하였다($F=25.684, p<.001$). 또한 자아탄력성($\beta=.384, p=.004$), 자기효능감($\beta=.666, p<.001$), 자아존중감($\beta=.362, p=.001$)은 자기조절학습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수들은 자기조절학습능력에 대해 41.1%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다.

Table 3. Correlation between ego-resilience, self-efficacy, self-esteem,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Ego-resilience	Self-efficacy	Self-esteem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Ego-resilience	1			
Self-efficacy	.764**	1		
Self-esteem	.693**	.598**	1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376**	.590**	.495**	1

** $p<.001$

Table 4. Multiple regression of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B	SE	β	t	p	VIF	Durbin-Watson
Ego-resilience	1.071	.362	.384	2.958	.004	3.030	2.007
Self-efficacy	2.517	.441	.666	5.708	.000	2.452	
Self-esteem	2.870	.827	.362	3.469	.001	1.965	

$R^2(\text{adj. } R^2) = .428(.411) F = 25.684 p < .001$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사 국가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간호대학

Table 2. Difference of correlation ego-resilience, self-efficacy, self-esteem,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according to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Ego-resilience		Self-efficacy		Self-esteem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M±SD	F or t(p)	F or t(p)	F or t(p)	F or t(p)	F or t(p)	F or t(p)	
			Scheffe		Scheffe		Scheffe		
Gender	Female	3.77±0.54	-.260(.795)	3.62±0.51	-.876(.383)	3.91±0.59	.085(.932)	3.62±0.55	-.143(.886)
	Male	3.81±0.62		3.73±0.53		3.90±0.50		3.64±0.51	
Age	≤23	3.77±0.52	1.209(.303)	3.60±0.50	.933(.397)	3.89±0.59	.301(.741)	3.58±0.55	.998(.414)
	24-26	3.72±0.55		3.72±0.55		3.90±0.55		3.69±0.50	
	27≤	3.80±0.59		3.80±0.59		4.07±0.40		3.81±0.59	
Employment	get a job	3.83±0.52	1.852(.067)	3.65±0.52	.298(.105)	3.94±0.55	.298(.105)	3.60±0.54	-1.064(.290)
	unemploy-ed	3.54±0.68		3.61±0.52		3.69±0.63		3.76±0.50	

생의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과 자기조절학습능력의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학습역량 강화를 위한 근거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일반적 특성에서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자기조절학습능력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나이가 27세 이상인 경우 다른 군에 비해 모든 변수들의 평균이 높았다. 이는 간호학과에 들어와서 성공적으로 교육과정을 마치고 졸업을 앞둔 편입생이나 만학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생각되지만 다른 그룹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또한 취업한 학생들은 자기조절학습능력을 제외한 변수들에서 미취업 학생들보다 평균이 조금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비록 미취업 상태라 하더라도 취업이 용이하며 병원 취업보다는 다른 직업을 원하는 학생들도 있어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학생들의 취업이 스트레스로 작용한다는 기존의 연구들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22].

본 연구에서 자기조절학습능력은 자아탄력성($r=.376, p<.001$), 자기효능감($r=.590, p<.001$), 자아존중감($r=.497, p<.001$)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은 자기조절학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학습과 동기에 유력한 매개 역할을 하며[23],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4]. 또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기조절학습능력이 높았으며[25], 중학생의 자아탄력성은 자기조절학습능력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26]. 자기조절학습능력은 스스로 목적을 설정하고 점검하며 평가하기 때문에 학습과 관련된 내적 요인들인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이 모두 연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의 내적 요인들을 강화시킨다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며, 간호사 국가시험을 앞둔 학생들의 시험과 관련된 스트레스 등을 조절할 수 있는 지지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국가시험 탈락률을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간호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학습부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습코칭 프로그램과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동기조절 훈련 프로그램은 자기조절학습능력이 향상되지는 않았으나 자기조절학습능력 함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나[27], 학습 컨설팅 프로그램은 자기조절학습능력이 향상되지 않았다[28].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 자아존

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기조절학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은 모두 자기조절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41.1%이었다. 자기조절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가 없어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예비유아교사의 자아탄력성과 자기조절학습능력은 서로 영향을 주는 요인이었으며[29], 중학생의 자아탄력성은 자기조절학습능력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30]. 중학생의 경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기조절학습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은 주의집중 문제에 대해 조절효과가 있었다[31]. 자기효능감이 자기조절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으며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의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기효능감 도구는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하부요인이었으나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자신감, 과제난이도 선호, 자기조절효능감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와는 달라 결과를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그러나 학업적 자기효능감도 자기조절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요인임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자기조절학습능력은 주로 교육심리학 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되고 있으나 간호학 분야에서의 연구는 아직 미미하다. 또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간호학문의 특성상 학습자이면서 인간인 학생들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시도한 연구는 일 대학의 간호학과 4학년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기본적인 표본수는 충족하였으나 선행연구에 비해 표본수가 부족하였으므로 일반화하기에 제한이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대상자를 확대하여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사 국가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과 자기조절학습능력의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학습역량 강화를 위한 근거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은 자기조절학습능력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자기조절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간호사 국가시험을 앞둔 학생들의 학습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자기조절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탐색적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제안한다.

REFERENCES

- [1] Korea Health Personal Licensing Examination Institute(2021).
- [2] Komarraju, M., Chance, R., Nadler, D. & Vance, T. (2013). Specific Strategies for Facilitating the Academic Success of Minority Students. Symposium proposal accepted for the National Multicultural Conference and Summit, Houston, TX.
- [3] H. S. Kweon. (2016). An Analysis to Identify Factors Associated with Academic Probation: A Data Mining Approach. *Journal of Human Understanding and Counseling* 37(2), 29-46.
- [4] Y. A. Ju, H. J. Jung, S. H. Hwang & Y. H. Kim. (2013). Study on the Effects of a Group Counseling Program to Enhance Self-Determination and Stress Coping Strategies for the Academically Underachiev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3(2), 85-115.
- [5] B. J. Zimmerman. (1989). A social-cognitive view of self-regulated academic learning.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1, 329-339. DOI : 10.1037/0022-0663.81.3.329
- [6] Pintrich, P. R., & DeGroot, E. V. (1990). Motivational and self-regulated learning components of classroom academic performanc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2(1), 33-40. DOI : 10.1037/0022-0663.82.1.33
- [7] Schunk, D. H., & Zimmerman, B. J. (2007). Influencing children's self-efficacy and self-regulation of reading and writing through modeling. *Reading & writing quarterly*, 23(1), 7-25. DOI : 10.1080/10573560600837578
- [8] S. H. Park. (2013). The Present and Future Tasks of Self-Regulating Learning.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 Psychology*, 27(3), 629-646.
- [9] Klohnen, E. C. (1996). Conceptual analysis and measurement of the construct of ego-resili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1067-1079. DOI : 10.1037//0022-3514.70.5.1067
- [10] H. S. You & Y. K. Yang. (2014). The influence of self-resilience and academic self-concept on test anxiety in undergraduates. *J Korean Acad Fundam Nurs*, 21(3), 275-282. DOI : 10.7739/jkafn.2014.21.3.275.
- [11] A. Bandura. (1986). "The explanatory and predictive scope of self-efficacy theory."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4(3), pp.359-373.
- [12] Y. G. Noh & Y. S. Lee. (2016) Influence of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on Test Anxiety among Nursing Students Taking the National Examination for Registered Nurse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6(11). DOI : 10.5392/JKCA.2016.16.11
- [13] M. L. Kim. (2002), "Friendships and Self-esteem in Adolescence", Doctoral dissertation, Chonnam University.
- [14] H. S. Park, Y. J. Bae & S. U. Jeong. (2002). A Study on Self-esteem, Self-efficacy, Coping Methods, and the Academic and Job-seeking Stres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11(4), 621-631.
- [15] S. C., Cho, Y. J., K-E Hong, M. S. & Shin & Y. H. Seong. (2001). Relationship Between Test-Anxiety, Depression, Trait anxiety and state anxiety.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12(2), 225-236.
- [16] H. J. Park (1997). *Perceived stress, coping, and depression based on ego-resilience*. Master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 [17] Sherer, M., Maddux, J. E., Mercandante, B., Prentice-Dunn, S., Jacobs, B. & Rogers, R. W. (1982). The Self-efficacy scal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51, 663-671. DOI : 10.2466/pr0.1982.51.2.663
- [18] H. Y. Hong. (1995). *(The) Relationship of Perfectionism, Self-Efficacy and Depression*. Master thesis, Ewha University, Seoul.
- [19] Rosenberg, M. (1965). Rosenberg self-esteem scale. *Journal of Religion and Health*. DOI : 10.1037/t01038-000
- [20] H. J. Lee & H. T. Won. (1995). Self-Concepts and Paranoid Tendency. *The Institute of Psychological Science*, 4(2), 15-29.
- [21] M. K. Chung. (2005). The Development of Self-Regulated Learning Test for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Education Evaluation*, 18(3), 155-181.
- [22] H. S. Park, Y. J. Bae & S. U. Jung. (2002). A Study on Self-esteem, Self-efficacy, Coping Methods, and the Academic and Job-seeking Stres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11(4), 621-631.

- [23] S. W. Bang. (2009). Educational Implications from the Research on Self-Regulated Learning and Self-Efficacy. *Journal of Korean Educational Idea*, 23(2), 103-123.
DOI : 10.17283/jkedi.2009.23.2.103
- [24] Y. S. Han, S. Y. Hyun, J. G. Lee & H. C. Jo. (2007). Relationship between learning skills and learning motivation, self-efficacy, and academic achievement.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4(2), 153-172.
- [25] M. J. Kim, M. J. Kim, S. H. Rhee & H. S. Doh. (2018). Pathways from Positive Parenting Behaviors to Career Identity in Adolescence: The Mediating Roles of Self-Esteem and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Journal of Parent Education*, 10(2), 273-295.
- [26] M. S. Ko. (2016) The Effect of Positive Parental Attitude on Adolescents' Adjustment to School-Focus on the Mediating Effect of Self-Regulated Learning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Resilience.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25(3), 295-306.
DOI : 10.5934/kjhe.2016.25.3.295
- [27] K. H. Lee & K. L. Kang. (2016). An Analysis of the Effectiveness of Learning Coaching Program to Improve Self-Regulating Learning Skills of Under-achieving College Student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creativity & problem solving*, 12(2), 119-154.
- [28] E. Y. Kim & S. H. Park. (2006). The Effects of Motivational Regulation Training Program on Students' Self-Regulated Learning and Academic Achievement.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0(1), 99-117.
- [28] K. M. Koh & S. K. Lee. (2018). The Effect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Ego Resilience and Smartphone Addiction on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8(21), 1133-1153.
DOI : 10.22251/jlcci.2018.18.21.1133
- [30] H. J. Lee & S. J. Kwon. (2013). Effects of adolescents' self-elasticity and peer attachment on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International Journal of Contents*, 13(10), 347-355.
- [31] A. R. Kim, A. S. Yun. (2018).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Academic Achievement: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through Attention Problem.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8(21), 969-990.
DOI : 10.22251/jlcci.2018.18.21.969

조혜경(Cho, HaeKyung)

[정회원]



- 1984년 2월 : 부산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사)
- 2010년 2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6년 8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7년 3월~현재 : 초당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노인간호, 호스피스
- E-Mail : hkcho43@hanmail.net